전남대병원·화순전남대병원 스마트병원 '성큼'

복지부 '의료 IT 정밀 실태조사' 참여
국내 첫 美 '디지털 헬스 지표' 적용
"전략 수립·투자 방향 등 기반 마련"

전남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이 보건복지부 '의료 정보기술(IT) 정밀 실태조사' 참여를 통해 스마트병원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8일 전남대학교병원 등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단순한 시스템 보유 여부를 넘어 병원 전체의 디지털 전환 수준을 입체적으로 진단하는 국내 최초의 정부 주도 정밀 평가다.

전남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은 호남권을 대표하는 국립대병원으로 이번 평가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보건복지부 등은 전국 국공립대병원 10곳을 대상으로 미국보건의료정보관리시스템협회(HIMSS)의 '디지털 헬스 지표(DHI·Digital Health Indicator)'를 적용한 정밀 진단에 돌입했다. 이번 평가는 약 5개월간 진행되며 연말께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디지털 헬스 지표는 ▲지배구조 및 인력 ▲상호 운용성 ▲개인 맞춤형 의료 지원 ▲예측 분석 등 4가지 핵심 분야에서 병원의 디지털 역량을 수치화해 평가하는 글로벌 기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정밀진단을 통해 국공립대병원의 상대적으로 부족한 디지털 투자 여건을 파악하고 그에 맞춘 정책적 지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남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은 이번 진단을 통해 단순한 IT 시스템 구축을 넘어 조직 운영, 환자 경험, 의료 경험 등 실제 디지털 전환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진단받게 된다. 이를 통해 향후 디지털 헬스 전략 수립과 투자 방향 설정에 중요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신 전남대병원장은 "이번 평가는 전남대병원이 지향하는 '환자 중심의 스마트 병원' 구축을 위한 기반 진단이자 도약의 기회"라며 "이번 평가를 계기로 체계적인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고 환자 중심의 스마트 의료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기수희 기자

'쥐어짜는 통증' 담석증 4년새 26% ↑

2020년 21만9천명→작년 27만7천명
기름기 줄이고 소식…"담낭 절제 최선"

심할 경우 담낭 천공이나 패혈증으로 이어지는 담석증 환자가 최근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희의료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환자 통계상 담석증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2020년 21만9천926명에서 지난해 27만7천988명으로 4년새 26.4% 증가했다.

담석은 지방을 분해하는 체내 소화액인 담즙의 구성 성분에 균형이 깨지면서 발생한다.

담즙은 수분, 담즙산염, 빌리루빈, 콜레스테롤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요소 간에 불균형이 생기면 결정체가 생겨 담석으로 발전한다.

/아이클릭아트 제공

김범수 경희대병원 간담도췌장외과 교수는 "최근에는 서구화한 식습관과 비만 등의 영향으로 담즙 속 콜레스테롤이 높아져 생기는 콜레스테롤성 담석 환자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담석이 담관을 막거나 담낭벽, 췌장 등을 자극하면 복통이나 황달, 발열 등 염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대표적인 증상은 오른쪽 윗배의 쥐어짜는 통증과 압박감으로, 식사 후 심해지는 것이 특징이다.

또 정도에 따라 등과 어깨까지 확산하기도 하고, 상태가 악화하면 담낭 천공, 복막염, 패혈증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담석은 재발 우려가 커 근본 원인이 되는 담낭을 절제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법으로 꼽힌다.

담낭을 없애더라도 일상에 큰 지장은 없다.

담즙을 일시적으로 저장·조절하는 담낭 기능이 사라져 지방 소화에 어려움이 생길 뿐 간에서 분비된 담즙은 소장으로 자연스럽게 배출된다는 게 의료진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담석이 재발하지 않도록 과식이나 기름진 음식 섭취는 피하고, 조금씩 자주 먹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또한 담낭 절제가 담관, 간, 췌장 등 인접 장기의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소화 기능 변화를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최근 민정준(오른쪽서 다섯 번째) 병원장과 강호철 진료부원장, 이정희 간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유성(왼쪽서 다섯 번째) 초록우산 전남지역본부장에게 정기 기부 캠페인 '한 끼의 행복한 나눔' 후원금 5천여만원을 전달했다. 〈화순전남대병원 제공〉

화순전남대병원, 올해도 '한 끼의 나눔'…16년째 따뜻한 기부

저소득층 아동 위해 5천여만원 후원
391명 동참…누적 5억5천여만원 ↑
마취관리실·63병동 '나눔 현판' 받아

화순전남대병원 임직원들이 올해도 지역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8일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최근 민정준 병원장과 강호철 진료부원장, 이정희 간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유성 초록우산 전남지역본부장에게 정기 기부 캠페인 '한 끼의 행복한 나눔' 후원금 5천여만원을 전달했다.

올해 병원 임직원 24명이 신규로 참여해 모두 391명이 후원에 동참했다. 해당 기부금은 화순전남대병원 환자를 포함한 전남 지역 저소득가정 어린이들의 생활비와 교육비, 의료비 지원에 사용된다.

'한 끼의 행복한 나눔'은 2009년 화순전남대병원이 초록우산 전남지역본부와 협약을 맺고 시작한 임직원 참여형 기부 캠페인으로, 한 끼 식사비를 아껴 후원금을 모금한다. 올해로 16년째이며, 누적 후원액은 5억5천800여만원을 넘었다.

병원 임직원들은 매년 20~30명의 아동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으며 긴급 지원과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아동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마취관리실과 63병동이 3인 이상 신규 정기후원 부서로 참여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으로부터 '나눔 현판'을 전달받았다. 나눔 현판은 부서 차원의 자발적 기부 참여를 격려하고 병원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의미 있는 상징이다.

김유성 초록우산 전남지역본부장은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꾸준히 함께해 주신 병원과 임직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한 끼의 나눔'이 병원과 아동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정준 병원장은 "임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여한 작은 실천이 지역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병원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수희 기자

광주기독병원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복지부, 재정·성과 기반 지원금 제공
"필수의료 지속 가능 형태 구축 등"

광주기독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8일 광주기독병원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시작된 이번 사업은 2차 종합병원이 지역 내 다양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포괄적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중증도 환자 진료 및 24시간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기능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주민이 거주지 인근에서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 대상은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 ▲진료 가능한 수술·시술 종류 수 350개 이상을 모두 충족한 병원 등이다.

광주기독병원은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고 응급 및 중증환자 진료 역량, 전문 진료체계, 지역 연계 기능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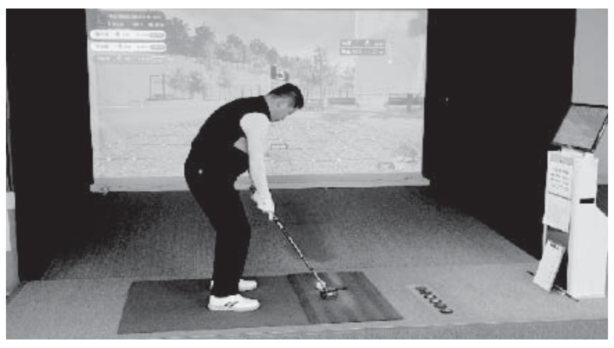
사업에 선정된 의료기관에는 필수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과 함께 기능 혁신에 대한 성과 기반 지원금이 제공된다.

광주기독병원은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 기반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승욱 병원장은 "광주기독병원은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달빛어린이병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 참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수희 기자

민간자격증 관리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파크골프 모든 것!
실내연습장 완비

지도자 자격증 취득
● 모집기간 : 수시모집(1:1교육)
● 교육접수 / 파크골프지도자 1,2급
▶ 교재 배송 → 1차 이론 자가학습
→ 1차 시험 → 2차 실기 1:1교육(매주 2회 이상)
실내파크골프연습장
● 접수방법
농협 351-1286-9685-63(국제파크골프연합회)
● 교육비 및 응시료
교재비 + 골프장 실습비 + 강사료
2급 합격시까지 28만원
● 접수 : H.P. 010-9163-7897 Tel. 062-369-0070

파크골프교육 (초보,중급,고급)
● 실내실습장(파크골프 스크린장)
1:1 책임지도(매주 2회 이상)
● 광주교육대학교 시민대학 강좌 개설
- 매주 토요일 09:00-11:30
● 매월1회 이상 파크골프 동호인 동행 전국구장투어


파크골프 샵 (골프채, 각종용품, 용구)

안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방향